불교, 민간 신앙 자비로 끌어안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② 절집에 자리 잡은 토속신, 산신(山神)

우리 불교의 휴머니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사찰 곳곳을 살펴보면 가장 구석진 곳, 혹은 가장 높은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전각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산의 주인인 산신(山神)을 모신 산신각(山神閣) 혹은 산령각(山靈閣)이다. 다른 법당에 비해 규모가 소박하긴 하지만 웬만한 부처님만큼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산신이 불교문화에 등장한 신이었던가?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이 아니었던가? 산신령은 언제부터 불교에 스며들었던 것일까?

산악신앙에서 시작된 산신신앙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알려 주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단군신화(檀君神話)'에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다가 1908세에 산신이 됐다고 하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경주 선도산(仙桃山) 성모산신(聖母山神)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와 인도에는 올림푸스(Olympus)와 만다라산(Mandara)이, 불교에는 수미산(須彌山)이 등장하며 도교에도 신선이 노니는 오악(五岳)과 삼신산(三神山) 설화가 확인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과 관련된 신앙, 즉 산악신앙(山岳信仰)은 항상 존재했다.

높게 치솟은 산 정상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고리이자 사다리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신성한 산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산을 관리하는 위대한 주인이 있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문화 속 산신 또한 이러한 맥락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오늘날까지 지방 산천 곳곳에 전해지는 전설과 민담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존재하는 것이다.

더피의 원조, 산신도의 호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신은 동화에서 보았듯이 긴 수염과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노인 형상이다. 불교의 산신 역시 노인 형상을 한 것은 맞긴 하나 더욱 화려한 모습을 지닌다. 또한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산신은 혼자 다니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을 모시는 동자(童子), 혹은 호랑이를 옆에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례는 산신과 호랑이의 조합이다. 불화 속 산신은 호랑이를 옆에 끼고 있거나 올라타고 있다. 그런 호랑이는 용맹한 맹수의 모습은 잊은 채 뻐드렁니를 내밀며 실실 웃고 있거나 바짝 엎드려 복종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은가? 그렇다. 얼마 전 전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Derpy)와 판박이의 모습이다. 더피가 민화(民畵) 소재로 표현된 까치와 호랑이를 모티프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익살스러운 호랑이 이미지의 뿌리는 불교에서 더욱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랑이는 '산군(山君)'으로 불릴 만큼 신성시된 동물이다. 이에 혹자들은 호랑이가 산신의 뜻을 전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심부름꾼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보다는 산군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랑이는 산군으로 불렸다. 여기서 산군은 산신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불화 속 산신과 호랑이를 살펴보자. 표정과 동세, 세부 모습 등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바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바로 산신은 곧 호랑이고 호랑이 역시 곧 산신이 되는 분신, 혹은 화신(化身) 같은 존재 말이다. 이에 불화 속 산신도에 표현된 산신령과 호랑이는 산신의 위대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잘 표현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다.



공주 대비암 산신도(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의 주산신(조선 1770년, 송광사성보박물관).



하동 쌍계사 국사암 신중도의 산신(조선 1781년, 쌍계사성보박물관).

> **산악신앙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 **불교미술 속 산신, 동자 혹은 호랑이와 함께**
> **임진왜란·병자호란 직후 산신 사찰에 자리**
> **조선 후기 민간 토속신 불교에 신중으로 합류**

민초를 보듬어 준 불교의 산신신앙

그렇다면 토속신이었던 산신은 언제부터 불교문화로 편입됐을까? 이와 관련해 〈화엄경(華嚴經)〉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자 수많은 보살과 신중이 이 모습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산신은 39위(位) 화엄성중(華嚴聖衆)에 포함돼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主)는 군주(君主)로 부처님과 뭇 왕인데 땅과 물, 숲, 산의 신은 기세간(器世間)의 주도자요, 천왕(天王), 용왕(龍王), 야차왕(夜叉王) 등은 중생세간의 주도자이다.

이와 함께 〈지장경(地藏經)〉 '칭불명호품(稱佛名號品)'에는 산신을 산왕불(山王佛)이라고 칭하며 산신이 불법에 귀의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1872년 간행된 의식집인 〈작법귀감(作法龜鑑)〉에는 산신을 '산왕대신(山王大神)' 혹은 '산왕대성(山王大聖)'으로 부르고 있다. 〈작법귀감〉에서는 "산왕대성께서는 가장 신통하고 가장 영험하시며 위엄 있고 용맹하십니다. 용맹을 떨치는 곳에는 요망한 귀신을 꺾고 마군을 항복시키며, 가장 신령할 때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며 무려 16명의 산신에게 복을 빌고 있다. 게다가 〈작법귀감〉에는 〈산왕경(山王經)〉이라는 경전도 언급돼 있으니, 산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불교경전이 편찬되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전 내용은 화엄세계를 표현한 변상도와 불교회화에 적용돼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산신(主山神)으로 기록된 산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전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처음 언급한 산신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신각 기록 중 가장 빠른 사례는 1696년에 건립된 군위 압곡사(鴨谷寺) 산령각과 1761년 처음 건립됐다는 양산 통도사(通度寺) 산신각이다. 이와 함께 18세기에 활동한 인악 의첨(仁岳 義沾) 스님의 〈인악집(仁岳集)〉에도 해남 은적암(隱寂庵)의 '산령각기(山靈閣記)' 내용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통해 민간의 산신은 적어도 17세기에서 18세기 무렵에는 이미 불교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산왕경〉 역시 산신각에 비치돼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신이 절집에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확실하진 않지만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즉 양란(兩亂) 직후 변화된 불교계의 양상으로 보고 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불교계는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오로지 유교만을 국가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 때문이었다. 물론 왕실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몇몇 사찰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와중에 양란이 터졌고 당시 스님들은 승군(僧軍)을 조직해 나라를 위해 싸웠다. 이후 왕실 역시 이와 같은 불교계의 공을 인정하여 전소된 사찰이 다시 지어질 수 있게끔 후원해 주었다.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우리가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산신과 토지신(土地神), 조왕신(竈王神) 등 토속신들이 바로 이때부터 불교에 넘어온 것이다.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황폐화된 국토에 역병까지 돌았다. 이에 백성들은 주변 곳곳에 있던 산신님과 조왕님, 토지신님께 기도하며 고통을 덜고자 했지만, 이미 그 사당 역시 파괴돼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교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불교가 가진 가장 좋은 능력, 포용과 자비로 해결했다. 조선후기 불교계는 민간 곳곳의 토속신들을 불교로 편입시키는 파격적인 인사 채용을 시도한다. 대대적인 구조 요청에 대한 수렴이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최고의 반응일 수밖에. 이에 수많은 토속신은 신중(神衆)으로 합류됐고 의식문화 발전과 함께 104위에서 124위에 이르는 수많은 신중을 표현한 신중도(神衆圖)로 표현되는 등 미술 문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항상 있었기에 우리는 왜 산신님이 사찰에 있게 됐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 없었다. 산신도, 조왕신도 절집에 머무르게 된 건 불교라는 자유롭고도 푸근한 울타리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개방적 성격을 가진 종교는 예로부터 불교가 으뜸이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다. 이에 사찰 산신각에 모셔진 산신 역시 우리 불교의 휴머니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용덕 작가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